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자!

남해 트로프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명 한명이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월의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쓰나미 정보와 피난 방법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번 달은 재해 발생 후 일주일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에 대해 소개합니다.



- 최저 3 일분, 가능하다면 1 주일분의 식료품, 물을 비축한다. 성인은 1 일 3 리터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차와 야채 주스 등을 고루 섞어 확보해 둡시다.
- 일상생활 안에서 비축한다. 냉장고에 있는 밥과 냉동식품 등, 평상시의 식재료를 많이 저장해놓는 것도 비축이 될 수 있습니다.
-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한 식품과 먹기 익숙한 식품도 비축한다. 간단히 에너지 보충이 가능한 식품과 과자 등, 좋아하는 음식과 익숙한 음식들도 비축해 놓시다.
- 비상시 가지고 나갈 물품을 준비한다. 방재용품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핸드폰의 예비 배터리 등), 의류와 위생용품, 약, 현금과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둡시다.
- 전기와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다. 실내용의 건전지식 손전등 등을 준비해 둡시다. 또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아웃도어용품도 방재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정전, 단수 등으로 수세식 변기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음용수와는 별도로 생활용수를 폴리에틸렌제 물통 등에 확보해둡시다.

평소에 재해와 그 대비에 대해서 가족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근처와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사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것으로 피해를 줄이고, 재해를 이겨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備えあれば憂いなし(준비돼 있으면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한다’라는 의식을 높여갑시다.

미야자키현에서는 4 개 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로의 방재·방법 메일 발신을 시작하였습니다. 등록하면, 희망하는 언어로 호우, 홍수, 지진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본 협회에서는, ‘외국인 재해 지원 자원봉사 양성 과정’을 9 월 10 일 (토)에 미야코노조시에서, ‘외국인 지원 자원봉사 양성 과정 및 외국인을 위한 방재 세미나’를 9 월 17 일 토요일에 미야자키시에서 개최합니다. 재해 시의 대응과 재해 시의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본 협회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